

동굴음악회 10년 - 그 회고와 전망

성악가, 동굴소리연구회 대표 현행복

동굴과 소리

동굴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 누구나 느끼게 되는 것은 동굴만이 갖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웬지 “거기 누구 있소?” 하고 큰 소리로라도 외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날 법하다. 어찌다가 소리라도 내어 외쳐볼 양이면 동굴 내부를 되돌려 들려오는 반향에 다시 한번 또 놀라게 된다. 여기에 동굴의 주인인 박쥐 떼마저 마주칠 때, 그 순간 동굴이 오싹, 식은땀이 흐르기 십상이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저 깜깜한 동굴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박쥐의 모습이다. 신비감을 넘어 경이로움으로까지 다가오게 만드는 저 박쥐의 비상한 날갯짓!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긴 하지만 박쥐에게는 생리상 초음파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동굴내부의 어떠한 장애물도 피해서 다닐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동굴은 무한한 소리 울림이 잠재되어 있는 곳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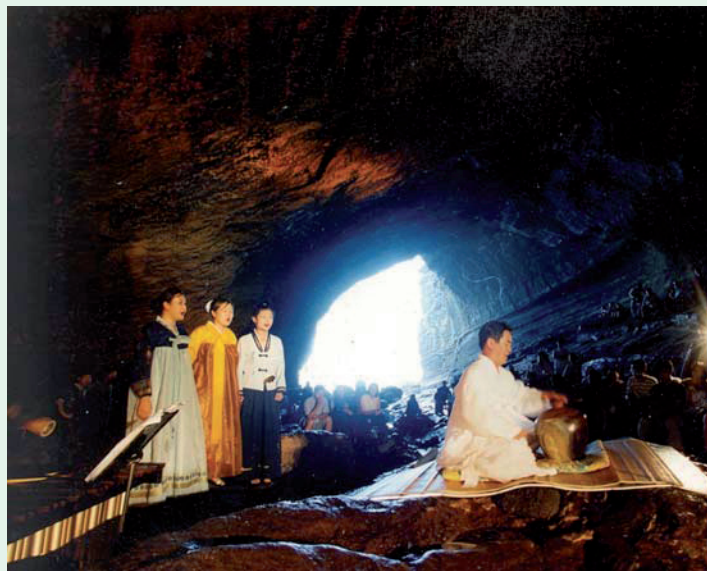
한국의 전통 관소리에서 득음(得音)을 얻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동굴에서 창범수련을 쌓는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소위 ‘토굴독공(土窟獨功)’이란 것이 그것인데, 동굴에서 마지막 담금질이라도 하듯 소리의 숙성을 꾀하려고 시도하는 일일 터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동굴이 젓갈류의 저장공간으로 활용되도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굴내부의 일정한 온도와 습기가 맛의 숙성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어 방음(防音)이 완벽하고,

공명(共鳴)이 좋은 조건은 소리 숙성의 좋은 조건이라 할 것이다.

‘동굴과 소리의 만남’이란 결국 동굴만이 지닌 우수한 자연음향의 체험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나온 발상으로서 본격적인 동굴 답사의 형태로 그 관심의 폭이 점차 넓혀져 나가게 되었다.

동굴소리연구회의 탐사활동

지난 1992년 필자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굴소리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시도했다. 돌아보면 당시 성악실기 수업을 받는 교실과 연습실의 조건이 너무나 열악해서 소리가 과장되게 들리는 현상이 생겨날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동굴이란 자연



공간으로서 그곳에서 소리실험을 시도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자연스런 소리내기란 동굴과 같은 자연공간에서 쉽게 체득할 수 있다’는 믿음이 또한 용기를 주었고 학생들을 설득할 명분이 되기도 했다.

예비 예술가들인 학생들이 무대에 서기 위한 배짱을 키우게 하는데도 동굴은 좋은 환경이다. 캄캄한 동굴로 발길을 들여놓으며 담력을 키워나가는 일 또한 소리훈련 만큼이나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주 곳곳에 널려있는 자연동굴의 분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는 작업이란 음악활동과는 무관한 일이긴 해도 제주의 산천과 자연, 땅에 대한 애정이 절로 생기면서 예술가치 지향성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생겨나게도 한다.

참으로 많은 동굴과 다양한 지역을 찾아다니는 셈이었다. 예컨대 수산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집중적 탐사를 벌이기도 했다. 많은 동굴 답사의 경험 가운데 제주시 오동동 목장 내의

답사는 특히 인상에 남을 만하다.

그날 오동동의 동굴 답사에는 마을 주민 몇 분도 참가해 길 안내를 자청했다. 동굴의 위치는 어렵지 않게 찾았고, 동굴내부를 다 둘러본 뒤 동굴을 막 빠져 나올 참이었다. 그런데 난데 없는 비행기 엔진소리와도 같은 게 동굴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게 아닌가.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나중에 보니, 답사일원 중 한 명이 입구 쪽의 말벌 집을 실수로 건드려서 발생한 일이었다. 새까만 말벌 떼가 동굴입구를 맴돌며 웅웅거리고 물러설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말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 겁이 덜컥 나기도 했지만 정면돌파를 시도하기로 작정했다. 눈부위만 남기고 웃웃으로 얼굴을 감싼 채 사선(死線)(?)을 뚫고 ‘걸음아 나 살려라!’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다. 오동동 목장의 드넓은 벌판을 잘도 빨리 내달렸다. 웃 위에 말벌들이 시커멓게 달라붙어 있어 웃웃, 아랫도리 할 것 없이 하나씩 벗어 내던지며 속옷차림으로 약 3백 미터 정도나 뛰었을까. 참으로 가관이었다. 군에서 훈련받던 중 소위 ‘팬티바람집합’이 연상되어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손가락 두 군데에만 쏘여 따끔거리긴 했지만 동료 대원 2명은 입술과 눈, 머리 부위가 말벌에 쏘여 금새 부풀어올랐다. 비상약도 없던 터였기에 임시처방으로 오줌을 발라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날 여느 때와는 달리 여자 회원들이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기 망정이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런 우여곡절 속의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동굴답사를 시



작한 지 5년만에 우도의 바다동굴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이 동굴음악회가 열리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장소라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우도의 바다동굴과 동굴음악회

독일의 세계적 작곡가 멘델스존(Mendelssohn-Bartoldy 1809-1847)은 스코틀랜드의 북서부 조그만 ‘스파타 섬’이란 바다동굴을 여행하고 난 뒤 그 감회를 ‘핑갈의 동굴(Fingal’s Cave)’ 서곡이란 작품으로 남겼다. 동굴 안으로 파도가 밀려들 때면 바닷물이 한데 어우러져 울동적으로 춤을 추며 노래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핑갈의 동굴음을 ‘음악의 동굴’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우리 고장 제주에도 핑갈의 동굴만큼이나 아름다운 바다동굴이 있다. 제주의 가장 동쪽 끝 섬 우도에 있는 주간명월(晝間明月; ‘낮에도 흰한 보름달이 뜬다’는 의미를 지님)과 동안경굴(東岸鯨窟; 고래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 속칭 ‘고래콧구멍’으로도 불림)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16세기 초엽 제주로 유배되어 왔던 충암(菴) 김정(金淨 1486-1521) 선생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우도가(牛島歌)」란 시를 남겼다. 칠언(七言) 33구 총 231자로 이뤄진 이 한시(漢詩)는 바로 우도의 아름다운 바다동굴을 환상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 시구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다.

“태음의 기운이 서린 동굴에 현묘한 이치가 머문다네(太陰之窟玄機亭).”

이 시 한 구절이 당시 동굴음악회를 준비하는 필자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기도 했다(이에 대한 소감은 당시 음악회 팸플릿에도 소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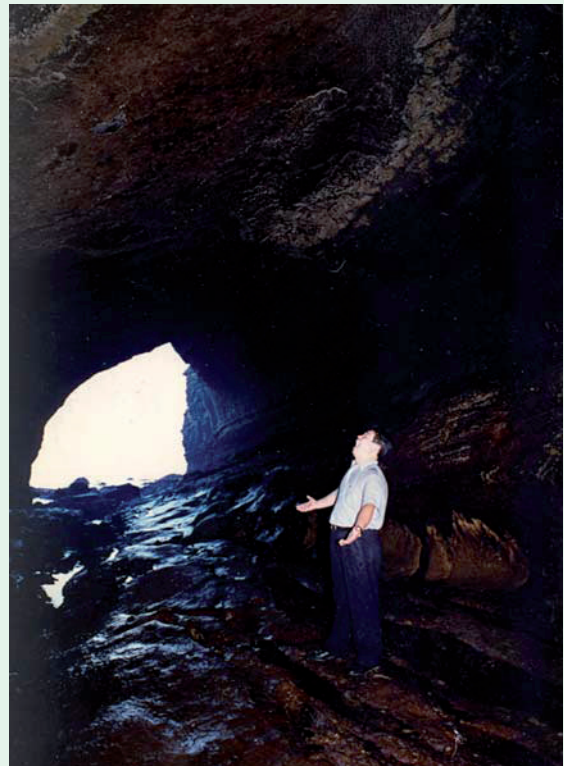
우도의 바다동굴인 고래콧구멍에서 동굴음악

회가 처음 열린 것은 지난 1997년 9월이었다. 그리고 나서 강원도의 석회암동굴(동해시의 ‘천곡동굴’, 태백시의 ‘용연동굴’)과 제주의 대표적 용암동굴인 만장굴에서 각각 두 차례씩의 동굴음악회를 개최했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우도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동굴음악회를 열어왔던 것이다.

전망

동굴음악회만이 갖는 매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음악회 장소를 인위적인 실내공간에서 동굴이란 자연공간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동굴음악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동굴음악회 10년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여



제주의 문화

러 가지의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며 그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동굴음악회는 한마디로 제주의 우수한 자연 환경이 실재함을 대변하는 문화행사라는 시각이 있다. 곧 제주만이 갖는 고유한 문화 예술적 전통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여 시도한 체험이벤트이기도 하다. 예전의 예술활동의 전개가 소위 '중앙무대' 라는 편중된 시각에서 서울로만 향하게 하던 추세의 패턴을 과감히 바꾸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역으로 서울 사람들을 지방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결국은 이 말은 동굴음악회가 예술체험과 관광을 접목한 형태로 발전되어 나가야 함을 암묵적으로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관광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도 모색해볼 법하다.

동굴음악회 개최 10주년을 맞는 감회는 각별하다. 강산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기간동안 필자는 어찌면 이 음악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보다 더 주력해왔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올해의 동굴음악회는 우리에게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 것인가?”

이런 관심의 표현이 자연스런 반향으로 곳곳에서 들려온다면 이는 분명 옳은 방향으로 가고있음이 자명하다. 